

## 內容이 틀린 登山路案內板

北漢山국립공원 곳곳에 새로 세워진 登山路案내板의 내용이 실제와 틀린것이 많다고 지적. 거리도 안맞는다는 이 탐방객은 자신이 축지의 전문인이라고 충고. 東·西 어느 관리소관내에 속하는 것인지 모르나 한번 조사해볼 일.

## 危險한 資材운반용 케블카

特殊施設의 資材운반 케블카는 冠岳山에서도 볼수 있는데 元道峰 望月寺 増築工事場의 資材운반용 케블카는 木材等 建材운반을 하고 있으나 出發點이 엄폐되어 있어 몰래 사람도 타지 않나 하는 慮憂事故危險이 도사리고 있다고.

勿論 許可받아 施設을 하였겠지만 許可後에도 사람이 타는지 監督해야지 萬若의 事故가 發生할때는 누가 責任을 질것인지 걱정하는 소리.

## 丹陽八景의 豪華3층 遊覽船

忠州多目的댐은 月岳山국립공원등 2百甲의 祕景을 水山觀光할수 있는 適地라 벌써부터 3층호화유람선을 탄 水上遊覽客이 봄빈다.

7年4個월의 大役事끝에 85년10月17日 竣工된 국내최대의 콘크리트댐이며 丹陽八景도 포함되고 있는 國立公園 月岳山, 바위덩이의 반달상과 女子가 누운 姿態인 錦繡山, 무암골의 將軍石, 용담폭포, 南漢江이 굽이쳐 흐르는 고습봉, 山중턱에 자리잡고있는 「고수동굴」湖畔을 가로지르는 높이 60m, 길이 315m의 清風大橋, 清風文化財團地등 댐周圍의 自然과 人工이 調和된 景觀은 빼어나 文字그대로 國內최대의 湖畔觀光地. 그밖에 國內最大의 電力生產, 忠州—丹陽間의 船運에 의한 鑛·農·林產物의 輸送등 이 湖水의 利用度는 대단하다.

그런데 최근 국립공원月岳山구역내이며 丹陽八景(地圖參照)이 자리한 湖水가운데다 3층호화바지船(固定시켜둔 船舶)을 띄운다는 소문… 국립공원내에 架設되고 있는 '케블카' 등 事業者로 부터 清掃費한푼 못 받아내는 自然公園法의 虛弱과 盲點때문에 公園區域內 大型施設事業者가 들어오면 골탕먹는 사람은 국립공원의 관리소직원들 뿐이라는 얘기들. 湖水上·下流로 往來하는 遊覽船의 終着点役割과 賣票·食堂·娛樂場所도 몇군데 있어 水質汚染防止施設등 環境影響評價는 完全히 끝난것인지 清掃와 監督方法도 문제점.



## 「清掃原因者の 出捐」 해석에 對한 억측

或者는 自然公園法49條의15(出捐)의 규정과 同法施行令 29조의13(清掃原因者の 出捐)을 잘못 파악한 탓인지 「요즘 소주생산자들이 出捐金을 기피하기 위해 代身에 프라스틱容器를 使用하는 경향」이라고曲解한다는데 그것은 同施行令內容을 잘못 파악한데서 온듯. 이 기회에 이에 대한 法條文을 明確히 적어본다. 自然公園第2條8項은 「清掃原因者라 함은 公園안에서 廢棄物을 버리는 者나 폐기물을 發生시키는 物品의 製造業體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者를 말한다」 그리고 同法施行令 2條의2(청소원인자)는 「법제2조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원인자는 公園에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酒類·清涼飲料 其他食品製造業體로서 建設部長官이 定하는 者로 한다」고 廣範圍하게 規定해 두고 있다. 다만 同法49條의15(出捐)를 보면 ①政府·清掃原因者 또는 其他의 者는 公園의 設立·운영에 소요되는 財源에 充當하기 위하여 出捐할수 있다. ②清掃原因者の 例위, 出捐金額, 納付方法, 出捐金使用 및 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라 하였으므로範圍등 ②項의 内容이 問題가 있긴하다.

그러나前述한 或者의 例代身 프라스틱製造云云은 出捐金관계가 아니라 제조업체의 經濟性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行使令29조의13 ①항을 보면 「公園에 出捐할수 있는 清掃原因者は 제2조의2의 規定에 의한 清掃原因者中 유리병을 主로 사용하는 酒類·清涼飲料 기타 食料品의 제조자로서 公園內에서의 폐기물 發生量등을 考慮하여 建設部長官이 定하는 者로 한다고 되어있으므로 量등을 策定하는 一線管理者의 正確性등이 重要視될 것이다. (J)